

그레이스미션대학 교차문화학 철학박사 ATS 10년 인가 쾌거



그레이스미션대학 교차문화학 철학박사 ATS 10년 인가 기자 간담회. 왼쪽부터 제임스 구 행정처장, 김현완 교무학장, 최규남 총장, 한기홍 이사장, 백성렬 교수, 이병구 박사원장

그레이스미션대학(총장 최규남 박사, 이하 GMU)이 미국 내 한인이 설립한 신학대학으로는 최초로 북미신학대학협의회(ATC)로부터 교차문화학철학박사(PhD in ICS) 인가를 획득했다.

또한 학교의 학문적인 성과와 성공적인 프로그램 운영, 재정 자립도와 학교 시설, 교수진 확보 및 학생 관리 등에 높은 평가를 받아 ATS로부터 2021년 7월 1일부터 '전과

정 10년 인가 연장'이라는 쾌거도 이뤘다.

특히 그동안 전미기독교대학협의회(Transnational Association of Christian Colleges and Schools, TRACS)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던 GMU 박사원 교차문화학 철학박사(PhD in ICS)프로그램이 이번에 ATS로부터 10년 인가를 받은 것은 ATS가 GMU의 학문적 성과와 교수진의 운영 능력을 인정했다는 의미

라 한인신학교 발전에 매우 고무적 성과다.

교차문화학 철학박사 학위는 주류 신학대학들 사이에서도 풀러, 바이올라, 트리니티 등 5개 신학대학만이 ATS로부터 인가를 받았을 정도로 권위있는 분야다.

최규남 총장은 "ATS로부터 받은 교차문화학철학박사 학위과정 인가는 그동안 GMU가 복음주의 신학교육교육과 세계 선교 지도자 양

학문적 성과, 교수진의 운영 능력 인정 받아 미주 한인신학교 발전에 매우 고무적 성과

성에 힘써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교차문화학철학박사 과정은 미래 선교신학자들을 길러내는 학문과정으로 현장 사역을 정리하는 과정과 학문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GMU의 선교학 박사과정과 교차문화학철학박사 과정은 논문을 포함해 4-6년 과정으로 과정 중 50%는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또 자연과학에서 주로 운영하는 연구 프로그램인 연구실 랩(Lab) 방식을 도입해 코스워크를 마치면 연구실로 배치되어 지도 교수와 함께 연구하고 논문을 작성하는 논문 중심의 연구 시스템을 확립했다. 연구소는 △다문화 리더십 개발 연구소 △타문화 연구과 세계관 연구 △현대 선교신학 연구소 △선교사 멤버케어 연구소 △세계 선교역사 연구소 등이 있다.

이병구 박사원 원장은 "박사학위

공부하는 사람은 '코스 워크' 과정을 먼저 밟게 되며 2년 정도의 과정을 지나면 어느 연구실로 갈지 결정하게 된다"며 "각 연구실에는 최대 6명까지 배치되며 지도교수들과 함께 연구를 통해 논문을 만들어 간다"고 설명했다.

GMU 박사원은 선교학 박사과정을 포함해 80여 명이 재학 중이며, 이 가운데 70%가량은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사역중인 선교사들이다. 선교사들에게는 선교사 장학금이 지급된다.

GMU 이사장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는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선교의 개념이 크게 바뀌고 있다. 선교 대상국 현지인들에게 신학을 공부시켜 선교사로 양성하는 것이 미래의 선교 방향이 될 것"이라며 "영적으로 어려워진 시대인 만큼 말씀 위에 올라서서 있는 목회자 한 명을 양성하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대유행 이후 문 여는 미국 대형 교회들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감하면서 주정부의 규제 완화로, 미국의 주요 교회들도 현장 예배를 재개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성도들을 새롭게 맞이하는 교회들의 복귀를 특집 기사로 다뤘다.

1. 임마누엘 바이블교회(Immanuel Bible Church)

버지니아 주 스프링필드에 소재한 초교과 대형교회인 임마누엘 바이블교회는 독립기념일(7월 4일) 주간에 현장 예배를 시작했다.

임마누엘의 담임 목사인 제시 존

슨은 주 정부의 법적 조치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존슨 목사는 "우리가 범정에 갔더라면 승소 했겠지만, 대신 정부가 자신의 명령을 집행할 때까지 기다리기 보다, 장로들의 지도하에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회가 지난 5월, 대면 예배를 시작했을 당시에 참석자 수는 대유행 이전의 30%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본래 인원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2. 락 처치(The Rock Church)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고에 위치한 복음주의 교회인 락 처치는 지난

5월, 포인트 로마 캠퍼스에서 직원들과 자원 봉사자들 중 15명이 코로나 집단 감염 증상을 보였다.

앞서, 락 처치는 2020년 10월까지 야외 현장 예배를 드리다가, 지난 4월 처음 실내 예배를 위해 모든 캠퍼스를 개장했다가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교회는 전 지역의 캠퍼스를 폐쇄하고, 교직원들을 모두 재택 근무로 전환했으며, 코로나 감염 검사를 받게 했다.

포인트 로마 캠퍼스를 이끄는 트래비스 김슨 목사에 따르면, 양성 반응을 보인 교인들은 현재 모두 회복되었으며, 5개 캠퍼스가 실내 예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고에 위치한 반석교회(Rock Church) ©교회 제공

배를 재개했다.

김슨은 6월 말 CP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사건 이후 테스트를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매주 최대 2회까지 테스트를 제공했다"며 지금도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의 지침을 지키며, 백신 완전 접종자에 한해 마스크 착용을 선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교회측은 미접종자를 위한 특별 마스크 전용 좌석과 야외 좌석을 따로 마련해 두었다. 김유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교정,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사연을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rit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월~금 : 8AM~6PM, 토 8AM~4PM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말씀과 현상이 만나는 역동적인 교육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글로벌 교수진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2021년 가을학기 한국어 학위 과정 모집

"미국연방인가기관 ATS 정회원" (2006년 취득)
1천명 이상의 세계 각국 교회 지도자 및 목회자 배출, 신학적 깊이와 사역경험이 탁월한 한미 교수진

로스퍼드 교수, Ph.D.
(영국스털링대학) 교회사

멜빈 렉스 교수, Ph.D.
(폴리신학교) 조직신학

프리스릴라 마요 교수, D.Miss
(폴리신학교) 티문화사역

데이빗 맥킨리 교수, D.Min
(트리니티신학교) 리더십

김민태 교수, Ph.D.
(폴리신학교) 선교학

**온라인 수업 제공
입학생 전원 장학 혜택
유학생 1-20 발급**

- 모집 학위과정**
MATS 신학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 장학금**
가을학기 전 입학자 25%, 목회자 30%, 선교사 40% 장학금 혜택
- 제출서류**
1. 입학원서 2. 신앙 및 지원동기 진술서
3. 대학(원) 졸업증명서(영문) 4. 성적증명서(영문)
5. 추천서(목회자 혹은 신학교 교수)
*입학서류 양식은 한국어 프로그램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2021년 7월 19일(월) ~ 8월 12일(목)
합격자 발표	2021년 8월 19일(목)

- 가을학기 일정(5주)**
9월 7일(화) ~ 11월 12일(금)
- 입학문의** www.itsla.edu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ITS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714)718-5239, (213)531-7215 /admin.kor@itsla.edu

총장 이승현 (James Lee), Ph.D.
1982년 개교한 ITS 신학대학원은 탁월한 교수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으며 2006년 이래 미국의 우수한 연방인가 기관 ATS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의 정회원입니다. 미국 ITS가 제공하는 깊이 있는 강의와 실질적인 훈련들을 한국어 온라인 과정을 통해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540 E. Vine Ave., West Covina, CA 91790
714) 718-5239, 213) 531-7215
admin.kor@itsla.edu

브릿지교회 창립 30주년, 풍성한 축제의 장 마련



브릿지교회 창립30주년 Festival

- 찬양 간증집회** JULY 4
지명현 목사 (소리엘 / 하나님이사여, 아굽의 축복 등 다수)
7월 4일 (주일)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1:00
- 찬양 간증집회** JULY 11
이은수 목사 (너는 내 아들이라, 아베스의 기도 등 다수)
7월 11일 (주일)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1:00
- 창립 30주년 기념 부흥성회** JULY 23/24
최홍주 목사 (PCIGA 총회장, 에브리데이교회)
7월 23일 (금) - 7월 24일 (토) 오후 7:30 (2일간)
- 비전(Vision) 집회** JULY 25
김승년 목사 (베른 루지 비전교회, 1대 담임목사)
7월 25일 (주일)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1:00
*2부 예배시 장로 & 권사 은퇴식이 있습니다.
- 창립 30주년 감사 및 위임예배** JULY 25
2021년 7월 25일 (주일) 오후 4:00

김재호 목사 (브릿지교회) | THE BRIDGE CHURCH | 브릿지교회 | T.800.484.0992 | 3045 Old Conejo Rd, Newbury Park, CA 91320

브릿지교회(담임 김재호 목사)는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7월 한 달간 찬양 간증 집회와 부흥 성회, 비전집회 등 풍성한 축제의 시간을 갖는다.

교회는 먼저 오는 7월 4일(주일) 소리엘 지명현 목사를 초청해 오전 8시30분과 오전 11시, 두 차례에 걸쳐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한다.

오는 7월 11일(주일)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아베스의 기도'로 유명한 이은수 목사를 초청해 오전 8시30분 오전 11시 두 차례에 걸쳐 찬양 간증 집회를 갖는다.

브릿지교회는 오는 7월 23일(금) 부터 7월 24일(토)까지 이틀 동안, 매일 저녁 7시 30분, 교회창립 30주년을 맞아 최홍주 목사(PCIGA 총회장, 에브리데이교회)를 초청해 부흥성회 개최한다.

또 7월 25일(주일) 오전 8시30분, 오전 11시)에는 브릿지교회의 1대 담임 목사인 김승년 목사(베른 루지 비전교회)를 초청해 비전 집회를 갖는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창립 30주년 감사 및 위임예배를 갖는다.

김동욱 기자

브릿지교회
전화: 800-484-0992
주소: 3045 Old Conejo Rd, Newbury Park, CA 91320

예장 대신 교단 설립 60주년 기념대회 및 미주 대한신학대학 학위수여식 개최



예장 대신 교단 설립 60주년 기념 대회 및 미주 대한 신학대학 학위 수여식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대신 교단 설립 60주년 기념 대회 및 제 25회 및 26회 미주 대한 신학대학 학위 수여식이 지난 11일, 중앙루터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류당열 목사의 자서전 출판 기념회와 제 7대 미주 대한 신학 대학 총장 취임식과 경축 음악회도 겸하여 진행됐다.

1부 예배는 김영배 목사(남가주 노회 증경 노회장)의 사회로 이강필 목사(미주 대한신학대학 텍사스 분교 부총장)의 기도, 박웅기 목사(

미주노회 증경 노회장)의 성경 봉독에 이어 박효우 목사(미주 대한 신학대학 제4대 총장)가 "대신 60년 역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최야곱 목사(남가주 노회 증경 노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2부는 졸업 및 학위 수여식으로 진행됐으며, 3부 제 7대 총장 취임식을 통해 전 안양대학 총장 이은규 박사가 제 7대 총장에 취임했다.

4부는 류당열 목사 자서전 출판 기념회로 진행됐으며 석정희 시인

이 축시를 낭독하고 이상재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이 경축사를 보내왔다.

5부 경축사에 이어 6부는 경축 음악회로 진행됐으며 테너 오위영 목사, 소프라노 김숙영씨 등 남가주 음악인들이 모여 예장 대신 교단 설립 60주년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김희창 목사(한국 예비역 기독교 군인회 남가주지회장)의 축도로 마쳤으며 서사라 목사(주님의 사랑교회)가 식사 기도를 했다.

류종길 목사 평생 목회 동역자, 함영희 사모 별세



故 함영희 사모

고 류종길 목사의 목회 동역자로 한 평생 헌신했었다.

고인은 2004년 류종길 목사가 김해제일교회에서 목회할 당시, 자신의 신장을 기증해 귀한 생명을 살리는 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장례예배는 오는 27일(화) 오전 10시30분(미 서부시간) 엘에이 한국장의사(2045 W. Washington Blvd LA CA 90018)에서, 하관예배는 같은 날 오후 1시(미 서부시간) 로즈 힐 메모리얼 파크(Rose Hills Memorial Park 3888 Workman Mill Rd, Whittier, CA 90601)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장례예배와 하관예배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김동욱 기자

미성대학교 명예총장 류종길 목사의 아내인 함영희 사모가 지난 14일 별세했다. 향년 70세.

고 함영희 사모는 국립의료원 간호대학과 방송통신대학교 영문과,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을 졸업하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허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브릿지교회 창립30주년 Festival

- 찬양 간증집회** JULY 4
지명현 목사 (소리엘 / 하나님이사여, 아굽의 축복 등 다수)
7월 4일 (주일)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1:00
- 찬양 간증집회** JULY 11
이은수 목사 (너는 내 아들이라, 아베스의 기도 등 다수)
7월 11일 (주일)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1:00
- 창립 30주년 기념 부흥성회** JULY 23/24
최홍주 목사 (PCIGA 총회장, 에브리데이교회)
7월 23일 (금) - 7월 24일 (토) 오후 7:30 (2일간)
- 비전(Vision) 집회** JULY 25
김승년 목사 (베른 루지 비전교회, 1대 담임목사)
7월 25일 (주일)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1:00
*2부 예배시 장로 & 권사 은퇴식이 있습니다.
- 창립 30주년 감사 및 위임예배** JULY 25
2021년 7월 25일 (주일) 오후 4:00

김재호 목사 (브릿지교회) | THE BRIDGE CHURCH | 브릿지교회 | T.800.484.0992 | 3045 Old Conejo Rd, Newbury Park, CA 91320

브릿지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고, 교회와 이웃사회를 연결하고, 세대와 다음세대를 연결하는 브릿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미국은 결코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김춘근 교수는 역사상 가장 타락한 미국에 회개와 대각성 운동이 펼쳐져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미국은 역사상 전례 없던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

관을 무너뜨리는 법안들이 주 의회와 연방의회에 계속 상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결코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교회가 희망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부흥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자마(JAMA)는 오는 26일(월)부터 8월 7일(토)까지 주일을 제외한 매일 새벽, 미주 한인교회 목회자들을 강사로 2021 영적대각성 새벽부흥회를 개최한다.

올해 영적대각성 새벽부흥회는 성경적 가치관이 훼손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상정되는 등 쇠락하는 미국의 영적 상황을 공유하고 부흥과 회복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집회를 준비하는 강순영 목사는 “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이 두려울 만큼 교육과 문화가 하나

님을 대적하고 있다. 대학은 무신론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장악했을 만큼 하나님을 떠나 있다”며 “미주 한인 교회가 이 때를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기억하고 에스더와 같이 비상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마 김춘근 교수는 “지금은 순수한 신앙이 도전 받는 시대로 연방의회는 평등법을 비롯한 반 기독교적인 법안들을 계속 상정하고 있다”며 “미국은 세계선교를 주도하고 세계 교회들을 이끌어갈 나라이기에 반드시 결코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나라이며, 부흥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한다. 부흥의 불길 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교회와 성도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집회 강사로 나서는 한기홍 목사

는 “교회가 소망이다.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한다”며 “교회들이 일어나 초대교회처럼 기도와 성령으로 타율라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 나라를 새롭게 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한편 2주간 동양의 집회는 유튜브에서 “2021 JAMA 영적대각성부흥회”를 검색하거나 웹사이트 ipc.jamaglobal.com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감사 헌금을 하길 원하는 교회나 개인은 JAMA로 차세대 사역을 위한 헌금을 보낼 수 있다. (22392 FM 16 W., Lindale, TX, 75771)

참가비는 무료이며 감사 헌금을 하길 원하는 교회나 개인은 JAMA로 차세대 사역을 위한 헌금을 보낼 수 있다. (22392 FM 16 W., Lindale, TX, 75771)

김동욱 기자 문의: 강순영 목사(310-995-3936), www.jamaprayers.org.

얼바인 베델교회 美 반성정적 공교육 대안으로 크리스천 사립학교 설립



지난 5월 23일 열린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 학부모 설명회 ©베델교회

남가주 얼바인에 위치한 베델교회(담임 김한오 목사)가 크리스천 사립학교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Bethel Classical Academy)를 설립하고 오는 8월 23일(월) 개교한다.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는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추진되고 있는 반 기독교적 공교육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설립됐으며, 철저한 기독교 가치관에 기초를 두고 수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립 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클래식(고전) 교육에 기반한 문법, 수사법과 논리를 중심으로 한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다. 또한 유치원에서부터 모든 교과과정에 성경, 라틴어, 외국어, 문학, 수학, 과학, 역사 등이 포함되며, 3학년년부터는 논리, 수사학, 문법 등이 추가된다.

김한오 목사는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성 정체성과 관련한 성교육과 평등에 관한 문제들이 입법화되면서, 공립학교에서도 점점 비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인 가치가 교과목으

로 지정되는 등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의 우려와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며 “성경적 자녀 교육의 문제를 놓고 여러 방면으로 연구하고 속고해 오던 중, 학교와 교회, 가정의 하나가 되어,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기초를 둔 교육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지혜와 인성을 갖추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당당한 리더들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기 위해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를 설립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김 목사는 이어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는 학생들이 성숙한 크리스천의 인격으로 자라가며,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학생들

을 격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크리스천으로서의 인격과 영적, 지적, 정서적인 면에서 균형 잡힌 학생들로 양육하기 위해, 일반 교과목과 합 음악, 미술 등의 다양한 교과목을 접목한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 등록은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 가능하고 매년 한 학년씩 늘려서 7년 후에는 K-12학년까지 전 학년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베델교회 교인뿐 아니라 타민족을 포함한 지역 사회의 크리스천 자녀들의 등록도 받을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문의: bethelclassical@gmail.com

2021 남가주 밀알 온라인 사랑의 캠프 “지저스 커넥션”

남가주 밀알선교단은 오는 7월 29일(목)-31일(토)까지 “지저스 커넥션”(Jesus Connection, 요 15: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이란 주제로 2021 사랑의 캠프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사랑의 캠프는 발달장애 청소년, 중증 재가 장애인 및 시설 장애인들이 장애의 벽을 뛰어 넘어 말씀과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한 시간이다.

캠프를 준비하는 남가주 밀알은 “예년에는 장애인들과 봉사자들, 스태프 등 400 여명이 모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롱비치에서 사랑의 캠프를 열었지만, 올해는 온라인으로 캠프를 진행하게 됐다”며 “비록 같은 공간에서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장애인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큰 위로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밀알선교단은 사랑의 캠프를 위한 펀드레이징을 실시하고 있다. 사랑의 캠프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봉사자들 모두 일정한 금액의 참가비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는 캠프가 온



라인으로 진행되어 예년에 비해 참가비가 적지만, 이 금액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밀알선교단은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큰 고통을 당하며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기쁨과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며 “작은 사랑의 손길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긴밀히 연결되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분 외면하지 않았다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환목사(예수전도단), 주선애교수(성신대 명예교수), 이종희교수(에스디교회), 송정영목사(복음전도), 권준목사(주일미주교회), 신원익목사(동명대), 유근기목사(영일교회), 김인식목사(KCC공명교회)

박상원 목사 책의 편지자

* 열의 복음에 열매로 주물라실 수 있습니다. \$20/권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원/영)과 속편 빛은 그분 외면하지 않았다'는 복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아성도들의 순교증언으로 지리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겐 복음통일과 완수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책코더명: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부해 드립니다.

기독교세계 GMWORLD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녕 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주세!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달려봐요 로세르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GMU)

총장: 최규남 박사 | 이사장: 한기홍 목사

전날은 인격 강한 군사 세계사관

GMU 학생이 누리는 특권

- 유학생 1-20 발행
- 연방정부 장학금 및 학비용자 (FSA)
- GMU 장학금 & 국제총회 교단 장학금 수여
- 미국 우수 학교들과의 학점 교류
- 통신(on-line)으로 학위 취득 가능
- 영어권 학생을 위한 English Track 운영

On-line 통신 과정

- 본교 출신 학생과 동등한 학위 취득
- Moodle 통신 수강 시스템을 통한 수업
- 실시간 동시 Live 강의
- 출석 수강과 통신 수강 혼합가능
- 온라인 도서관을 통한 e-북 & 연구자료 제공

박사과정

- BA(신학 학사)
- BACC(기독교 상담학 학사)

석사과정

- MDiv(목회학 석사)
- MACE(기독교 교육학 석사)
- MACC(기독교 상담학 석사)
- MAICS(선교학 석사)

박사과정

- D Miss(선교학 박사)
- PhD ICS(교차문화학 철학 박사)

본교가 등록된 미국 대학교 인증기관

ats trocs ABHE BPPE CHEA ED.gov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 | www.gm.edu

입학문의: admissions@gm.edu
박사원: www.dr.gm.edu 이메일: doctoral@gm.edu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14

“팔로마 한인교회 창립 26주년’ 감사예배를 다녀오다”

지난주일(11일) 서명성 담임목사의 초청으로 창립 감사 주일의 1, 2부 예배를 말씀으로 섬겼다. 평소 존경해 오던 교단 선배인 서 목사님이 개척하고 26주년을 맞이하는 창립 감사 주일 예배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자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 참 감사한 일이었다.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팔로마 한인교회는 우리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개척 무렵부터 후원한 교회이다. 목사님 내외분은 물론 장로님들과 교우들 모두가 한결같이 우리 신학교에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 매년 신학교의 졸업식 주간이 되면 목사님과 성도들은 우리 학생들과 졸업생들을 축하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자 차량 가득 고기 등의 음식 재료들, 옷가지들, 선물 등을 싣고 찾아와 주시는, 매년 따뜻한 사랑으로 역대의 학생들에게 아름답게 기억되는 교회이다.

창립 감사 주일 예배는 평소 주일예배처럼 특별순서 없이 간결하였고, 예배 후 친교 행사도 매우 간소하게 그러나 성도들은 기쁘고 밝았다. 필자가 참 기쁘게 생각한 것은 팔로마 교회가 그간 후원하던 몇 곳의 선교사님들의 영상 축하 메시지가였다.

오랜만에 근황을 듣게 된 김성주 선교사님(중국) 가정 소식이었다. 중국 파송을 받으신 후 지난 20년간 변함없이 교회는 그들을 후원하며 단기팀이 지속적으로 선교사님 사역을 지원했다. 그러던 중 중국 당국이 교회당을 무너뜨리고, 전역에 걸쳐 핍박이 거세지고 그 땅에서 사역하던 대부분의 선교사들을 추방하면서 김 선교사 가정도 사역 거처를 말레이시아로 옮기게 되었다. 그러나 선교사 내외는 그곳에서 창의적 사역을 열었다. 당신들이 중국으로 갈 수 없게 되자 중국인 제자들이 선교사들을 찾아 말레이시아로 와서 훈련을 받고 파송 받아 다시 본국으로 들어가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소명 따라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포기는 없다. 진정한 선교사는 역경을 돌파하는 담대함과 소망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 어려움 중에 사역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양육한 중국 현지 교회가 헌금을 모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다고 한다. 은혜를 감사로 보답할 줄 아는 중국의 제자들과 교회들을 세워 낸 김 선교사님 내외분에게 이같은

는 박수를 보낸다.

또 팔로마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 중에 동티모르 이한성 선교사가 있다. 필자와 샌프란시스코 신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연배가 위인신 동문 선교사이다. 그는 학교 때부터 선교사의 사명을 갖고 공부를 했고 기도한 대로 졸업하자마자 동티모르로 파송 받아 갔다. 처음에는 그를 반기는 사람이 없었다. 현지인들은 직전에 겪었던 어마어마한 내전의 여파로 매우 날카롭고 적대적이었다. 그런 그들 사이로 들어가 살면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사이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다. 농장도 가꾸어, 그곳에서 나는 작물들을 팔아 현지인들의 소득분배에 힘썼다. 신학교도 세워 장차 교회 개척을 주도할 목회자 양성에도 힘을 썼다.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제 동티모르의 몇 분 안 되는 선교사들 사이에서 말형 역할을 하며 영적 열매를 많이 맺었다. 이 선교사의 초기 때부터 역시 팔로마한인 교회가 후원을 하였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는 에스더 박 선교사도 만났다. 그녀는 미주 장로회신학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음악 전공자이기도 하다. 팬더믹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면서 사명을 수행했다.

오랜만에 선교사님들의 근황과 소식을 접한 기쁨이 컸다. 예배 중 함께 기도한 제목은 현재 3주 예정으로 파나마 단기선교 중인 본교회 대학부의 은혜중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성도들 모두 간절히 기도했다.

팔로마한인교회는 창립 감사 주일 예배를 온통 선교사역자들의 순서로만 채웠다. 참 자연스러웠다. 돌아오면서 필자는 생각했다. “아! 이 교회는 선교적 교회이다. 서 목사님은 역시 선교적 목회를 하신다. 귀하다.” 필자의 가슴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졌다.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인문학으로 읽은 바울의 생애 ② “가이사랴를 소개합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체포당합니다. 체포된 바울이 로마 총독이 머무는 가이사랴(Caesarea)로 옮겨져 2년간 구금 생활을 합니다. 이 가이사랴는 백부장 고넬료(Cornelius)가 근무했고, 베드로를 초청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집사가 전도자가 되어서 선교를 하다가 정착해서 살았던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행12장에 헤롯 아그립바왕이 가이사랴에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두로와 시돈에서 가까운 이 가이사랴는 헤롯의 아들 빌립이 통치하면서 만든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와 다릅니다. 헤롯 빌립은 자신과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Caesarea)이름을 넣어 도시의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와 다른 가이사랴 마리티마(Caesarea Maritima:바닷가의 가이사랴) 혹은,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랴 (Caesarea Palestine)’라고 불렀는데, 지중해 해안가에 우뚝 선 로마시대 행정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랴는 원래 페르시아 시대에는 베니게(Phoenician)사람들이 거주했던 스타라토 망대(Strato's Tower)라는 도시였습니다. B.C.103년 로마가 정복하였고, 가이사랴 황제가 헤롯대왕(Herod the Great)에게 주었고 헤롯대왕은 대대적인 공사를 통해서 국제 해양 도시로 가이사랴를 건설했습니다. 건축 전문가였던 헤롯대왕은 광복할만한 건축물을 남겼습니다. 예컨대 예루살렘 성전 건축, 여리고 겨울 궁전, 사해해변에 세운 마사다 요새 건축 등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주목 받는 업적이 가이사랴의 건설입니다.

헤롯대왕은 가이사랴 건설 공사를 진두지휘하였습니다. 헤롯은 이 도시를 정치적 후원자인 가이사랴(Caesarea Augustus)황제에게 헌정합니다. 헤롯은 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전부를 투자했다고 성서 지리학자인 데이빗 패드필드(David Padfield)목사는 주장합니다. 건축전문가였던 헤롯대왕이 온 정성을 다해 건

설했습니다. 가이사랴의 규모와 수준은 현대의 전문가들도 인정할 만큼 엄청난 시설을 가진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라이벌 도시로 부상할 만큼 로마가 자랑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가이사랴는 놀라운 인공 항구도 시입니다. 가이사랴는 현대의 건축술로도 상상하기 어려운 화려한 도시입니다. 석회암(Limestone)이 많이 사용되었고, 도시 중심가에서 극장으로 연결된 도보는 모자이크 기둥들이 도로변에 세워졌고, 그중에 1천300개가 발굴되었습니다. 당시 가이사랴의 활발한 해양 무역을 가능케 하는 대형 물류 창고가 발굴되었습니다. 아울러 고대 중국의 도자기가 가이사랴에서 발굴되어 중국과의 교역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하기도 합니다.

헤롯대왕은 가이사랴에 궁궐, 로마황제신전, 극장, 시장, 경기장, 원형극장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 등을 건설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극장은 45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극장입니다. 극장 유적에서 본디오 총독 빌라도(Prefect Pontius Pilate)의 이름이 새겨진 돌이 발굴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20-23에 헤롯(아그립바)왕이 백성들에게 연설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바로 이 극장에서 연설하고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유대인 사학자 요세푸스(Flavius Josephus)는 헤롯 아그립바왕이 닷새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가이사랴의 헤롯 항구는 지금의 기준으로 대단한 시설과 규모를 자랑합니다. 요세푸스는 헤롯 항구를 야테네 항구인 피레우스(Pi-

raeus)와 비교하면서 경이로운 시설이라고 극찬하였습니다. 주변에 섬도 없고, 만도 없는 조건 속에서 이런 항구의 건설은 역사상 최초의 건설공사로 알려집니다. 아쉽게도 이 항구는 AD. 130년경에 있었던 지진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가이사랴는 물이 부족했습니다. 목욕 문화가 발달했던 로마시대에 물이 부족한 도시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Carmel) 수니(Shuni) 샘에서 상수도로 물을 관개했습니다. 이 상수 시설은 인구증가로 확장을 거듭해서 그 후 수로(水路:Aqueduct) 공사가 15차례나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도시화 공사가 끝났을 때 가이사랴는 팔레스타인에서 예루살렘과 쌍벽을 이루는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가이사랴는 다양한 인종들이 살았고, 인구는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도시를 건설한 후 곧 로마 총독이 주둔하는 유대지방(후에 팔레스타인지방)의 행정 수도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로마의 천부장과 백부장이 주둔하는 군사 도시가 되었습니다.

가이사랴는 정치적 중심 도시로 시작해서 군사도시와 상업도시로 성장을 했고 초기 기독교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AD 3세기경에는 초대 기독교 철학자인 오리겐이 20년 이상 거주했습니다. 또, 오리겐이 자랑한 도서관이 있었는데, 장서가 3만권이었습니다. AD 4세기에는 콘스탄틴 대제의 종교 분야 자문관이었고, 최초의 교회사가(敎會史家)로 알려진 유세비우스가 가이사랴의 첫 감독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비잔틴 시대에도 가이사랴는 계속 발전했습니다. 6세기에 성벽이 완성되어 요새화 되었고, 아랍 전쟁 후 잠시 쇠퇴하였으나 7세기에 다시 요새화 되었습니다. AD 1101년에 십자군에 의해 점령된 이후에는 십자군에 의해 다시 요새화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의 성장세는 13세기 십자군 전쟁 이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성서 지리학자인 데이빗 패드필드는 ‘동방건문록을 썼던 마르코 폴로의 출발지가 가이사랴였다’고 주장합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사랑과 섬김! 행복의 비밀입니다!
World Share USA가 LA에서 특별한 사랑과 섬김을 시작합니다. 월드쉐어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는 UN과 협력합니다. 월드쉐어는 질병과 가난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장애 빈곤 아동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처음 본 예수님 알아보았을까?

■ 최덕성 칼럼 [위대한 이단자들 1] 바울 1: 이단의 괴수

바울(Paul, 1-62/64)은 이단의 괴수(행 24:5)였다.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 틀림없는 이단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본래 유대교 바리새학과 엘리트 신학도였다.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 회심을 했다. 그 뒤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기독교 교리를 확립했다.

바울은 예리한 통찰력으로 율법주의와 지성주의 신령과를 견제하면서, 기독교 정통 교리를 체계화했다.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자 바울은 예수가 유대인이 기다리던 바로 그 구원자(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 분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예수 구원의 복음 진리 전파에 헌신했다.

그는 죽은 예수를 상품화한 종교 철학자가 아니었다. 대속의 희생을 담당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였다.

바울 메시지의 핵심은 '나무에 달려 죽은 구원자 예수'였다. 유대인들은 신명기(21:23) 기록에 따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며,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바울은 이 개념을 뒤집어 엮었다. 인류의 구원자는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렇다. 신명기, 이 법전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는 저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러나 바로 그 분이 그리스도 곧 구원자다.

바울은 '나무에 달려 죽은 구원자 예수'라는 안티테제를 내세웠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했다.

나무에 달려 처형당한 예수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면서, 바로 그 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화목제물, 그리스도라고 역설했다(갈 3:1). 바울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의 핵심과 대립점을 명료하게 설명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유럽, 북미, 대양주 주류 기독교회는 자유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신학을 받아들이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체계화한 복음을 '왕따'시켜 왔다. 그들은 포용주의, 다원주의, 신앙무차별주의를 지향한다.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신종 기독교는 바울의 가르침에 충실한 정통 신앙인을 '근본주의자'라고 폄하한다. 바울의 정통 신학을 사실상 '이단' 사상으로 여기며, 기독교가 아니라 '바울교'라고 비난한다.

바울이 예수를 유대 민족이 대망하던 메시아라고 억지 주장하여 예수가 장출한 생명(bios)문화 공동체 운동을 걸길로 오도했다고 본다.



영화 속 사도 바울.

기독교의 핵심은 '나무에 달려 죽은 구원자 예수'가 아니라 '원수 사랑과 율리의 모범인 예수'이며, 예수 신앙은 자기의 욕망을 소멸시키고 타인을 위한 삶에서 자기를 재구축하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본다.

바울은 이단 판별이라는 혼란스러운 사안을 두고 고심하고 씨름하는 오늘날 신학자들을 향하여 '나무에 달려 죽은 구원자 예수'를 각인시킨다. 교회를 향하여 '양꼬 없는 쥘빵' 같은 기독교가 되지 말라고 당부한다.

역사적 기독교가 고백한 정통신앙을 따라 예수 복음전파에 전신전력하는 전도자들을 향하여, 용기를 가지고 더욱 분발하라고 한다. 교회를 향하여 자유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신학을 지향하는 신종 기독교의 독성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

1. 자랑스러운 유대인

바울은 자기의 태생적 유산을 명예롭게 생각했다. 자신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베냐민 지파 족속, 바리새파 유대교인이라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졌다(고후 11:21-22).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며, 히브리인이었다. 양질의 감람유로 유명한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 태어났다. 8 일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자랐으며, 율법에 비추어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데 모자람이 없었다. 새롭게 등장하는 예수신앙 운동 박해에 열성적인 것도 동족 유대인에게 자랑할 만한 업적이었다(빌 3:4-5).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바울은

부모와 함께 터키 동남쪽 다소에 끌려갔다. 흠어진 유대인 이민자, 곧 디아스포라가 되었다. 바울이 자라고 청소년기를 보낸 제2의 고향 다소는 흑염소들이 뛰놀고 마(麻)와 옥수수과 포도가 자라고 있었다.

바울은 회심 전 막노동에 대해 유한계급 숙명적 인식을 과시한 적이 있다. 성인이 된 뒤에도 막노동을 하지 않았다. 나중에 자신이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고(고전 9:19), 남을 높이려고 자기를 낮추었다(고후 11:7)고 말했다.

바울은 평안한 가정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았다. 그가 받은 교육은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 누릴 수 없는 특혜였다. 고액의 교육비는 부모가 부담한 것 같다.

바울은 높은 수준의 비평적 사고 훈련을 받고 철학 지식을 쌓았다. 신약성경 바울서신들은 바울의 학문적 통찰력, 논리력, 비평력, 종합력, 창의력, 수사력, 문학적 소양, 언어능력, 역사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진지한 성찰, 실득력 있는 표현 방법을 담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바울이 받은 양질의 교육의 열매이다.

바울은 구약성경 그리스어 번역본에 익숙했다. 비범한 능력으로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으며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었다. 바울의 서신들은 구약성경 본문을 90회 가량 인용한다.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이 언급하는 예수의 부활은 보통 유대인의 일상 대화에서 들을 수 없는 내용이다. 그가 성경에 통달하고 회당 예배와 가정교육을 거쳐 부활을 믿는 돈독한 바리새파 신앙을 가졌음을

시사한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민족적 우월감과 자존감의 근거로 삼았다. 모세의 가르침에 따라 금기 음식을 먹지 않았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리스 철학과 스토아주의 영향 아래에 있는 '다소 대학교'의 대부분 학생들과 달리, 유대주의를 선호했다. 유대교 율법 613개 조항을 존중하고 철저히 지켰다.

바울은 정통과 유대인이 되려고 주후 15년경 예루살렘으로 갔다. 갓 청년기에 들어설 무렵이었다. 먼 길을 걸어, 유월절 순례객의 일원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한 달 보름이 넘는 동안 길리기아 평야의 진흙투성이 길과 시리아 관문을 통과하고 또 산지를 거쳐 가이사라를 지나 예루살렘에 당도했다. 유월절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거주민들보다 3배나 많았다. 숙소를 얻는 것도 쉽지 않았다. 베다니나 벳바게 근처 마을에서 묵거나 감람산 언덕에 장막을 쳤을 것이다.

바울은 바리새파 대학자 가말리엘 1세의 가르침을 따랐다(행 22:3). "무지한 자는 결코 기록해할 수 없다"는 바리새파 명제를 받아들이고, 성문화된 율법뿐 아니라 전통적 해석, 구전(口傳)되는 율법도 배웠다.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데 열심이었다(갈 1:14).

동년배들 사이에서 유대교 신봉 선두주자로 두각을 나타냈다. 인문학적 배경, 성경지식, 전문적인 어조, 도전정신, 경쟁심리 덕분에 성큼 바리새파 엘리트 그룹의 일원이 되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바리새파

핵심당원이 되기는 쉽지 않았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하생들, 동기생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함께 식사를 하고, 단체생활을 했다. 율법을 지키고, 엄격한 의식(儀式)을 따랐다.

결혼은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에게 의무사항이었다. 결혼을 하지 않고서는 바리새파 엘리트가 될 수 없었다. 바울의 결혼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바울은 홀로 지냈다(고전 7:8).

바울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와 만나거나 마주쳤을 수 있다. 그러나 바울서신들은 암시조차 하지 않는다. 만났어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리 없다고 생각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수 있다.

주후 30년 4월 7일 금요일,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 일몰 때 죄수들의 십자가 처형이 집행되었다. 베히대는 동물들을 짊어지고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 도살된 가축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었다.

로마 군인들은 죄인들을 호송했다. 바리새파 최고 엘리트가 사형당하는 죄수들을 보려고 구경꾼 대열에 덩달아 끼어들 리 없다. 바울은 엘리트 체면을 구기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만남은 추종자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었다. 제자들은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담대하게 예수가 약속된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화해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선포했다.

사도들의 복음 메시지는 단순했다.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었다. 제자들은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가르쳤다(행 5:42). 많은 개종자들이 생겼다.(계속)



최덕성 박사
브니엘신학교 총장

2021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p>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정회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p>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p>	<p>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정회원, ATS 회원 기독교회(BC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목회학사 과정 신설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p>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관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 aeu@americaevangelical.edu</p>	<p>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p> <p>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100% 한국어 I-20 발급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p>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lts.edu</p>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p> <p>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p>
<p>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p>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p>	<p>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p>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p> <p>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p>	<p>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p> <p>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p>
<p>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p> <p>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857-2200</p>	<p>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p> <p>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p>	<p>FULLER THEOLOGICAL SEMINARY</p> <p>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p> <p>광고 및 후원 문의</p> <p>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p>

닉 부이치치, 낙태 근절 위한 '친생명 은행' 공동 설립

미국의 복음전도사이며 '사지없는 삶(Lifewithout Limbs)'의 대표인 '닉 부이치치'가 프로라이프 은행을 설립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부이치치는 캘리포니아 산타 바버라 소재 친생명 여성 진료소인 '네트워크 메디컬 워먼즈 센터' 전 무이사인 벤티 그레이와 공동으로 이 은행을 최근 창설했다.

부이치치는 최근CP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은행들(사실상 90%)이 낙태에 대해 자비롭게 기부한다"며 막대한 하나님의 돈이 태아 살해 자금으로 사용되고 현실을 지적하면서 새 은행의 취지를 밝

혔다. 그는 프로라이프 은행이 영리 목적이 아닌 '기부를 위한 은행(forgiving bank)'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순이익의 50%를 유대 기독교 제휴 비영리 단체에 내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노아의 생명을 구하는 것처럼, 프로라이프 은행을 통해 생명을 구할 것"이라며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역할을 되찾고, 그의 충실한 제자들을 통해 재분배하기를 원하신다는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미국에는 7,700만 건의 낙태가 있었다. 이는

우리 인구의 23%에 해당한다"며 "기독교인 3명 중 1명은 낙태를 한 적이 있다. 저는 '낙태의 절반이 기독교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교회라는 새장을 흔드는 역할을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독교인들이 시의회, 학교 위원회 및 지역 정치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미국을 되돌려드리는 것에 그들의 목소리를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3월 그는 친생명을 주제로 한 영화 '로 대 웨이드' 시사회에 참석하여, 미국 최초의 낙태 합법



프로라이프 은행을 공동설립한 닉 부이치치 ©닉 부이치치

화 판결은 뒤집힐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정치 행동 컨퍼런스(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그는 미국에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12개의 성역(sanctuary) 도시들이 있다면서 전국의 모든 도시에 변화를 가져올 힘은 기독교인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강연에서 "우리는 도시마다 교육 위원회로 가서, 성경을 학교 교육제도로 다시 가져오자"면서 "그것이 우리가 미국을 되찾는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김진영 기자

미국 대법원, 종교학교 등록금 주정부 지원 항소 심리



미 대법원 ©Pixabay

미국 대법원이 사립 종교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주 정부의 등록금 지원을 거부한 메인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의 요청을 듣기로 합의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2일 발표된 공고에서 대법원은 학부모 측인 '데이비드 카슨(David Carson)' 대 메인주 교육부 위원인 'A 펜더 메이킨(A. Pender Makin)' 사건의 변론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메인주는 미국 헌법 제1차 수정안에 따라 '비종교적(nonsectarian)' 사립 학교에만 등록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2018년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학부모 권리를 대변하는 '인스티튜트포저스티스'의 스콧 블록(Scott Bullock) 회장은 같은 날 성명에서 "모든 가정들에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블록 회장은 "학부모는 공립 및

사립, 종교 및 비종교적인 다양한 교육 선택사항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레아 자녀들의 고유하고 개별적인 필요에 가장 적합한 학교에 접근할 수 있다"며 "대법원은 이제야 이것을 현실로 만들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원고에는 벙고어 기독교 학교(Bangor Christian School)에 자녀를 입학시킨 학부모 카슨스 부부와 길리스 부부, 그리고 비종교 사립 학교에서 템플 아카데미(Temple Academy)로 딸을 전학시킨 넬슨 부부가 포함되어 있다.

2019년 6월, 메인 지방법원 판사인 D. 브록 혼비는 "메인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2020년 10월에도 미국 제1항소법원의 세 명의 판사도 원심 판결을 만장일치로 지지했다.

당시 데이빗 배런(David Barron) 항소법원 판사는 의견서를 통해 주정부 기금은 "무료 공교육에

해당하는 비종교적 교육에 사용된다"며 "자유행사 조항이나 국교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인스티튜트포저스티스는 2020년 2월, 법무법인 퍼스티티버티 인스티튜트 등과 함께 제심을 촉구하는 상고 허가 요청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

저스티스 소속 변호사인 마이클 빈다스(Michael Bindas)는 성명을 통해 "메인주는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키려고 종교만을 유일하게 선별함으로써 미국 헌법을 위반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빈다스는 이어 "명목상 종교 학교들이 참여하도록 허용하지만 실제로는 종교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학교들은 제외시킴으로써, 메인주는 종교가 얼마나 종교적인지에 대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주)정부가 그런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美 여권, 실제와 무관한 성별 선택 가능... '제3의 성' 도 추가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상식과의 전쟁, 거짓에 동의하라는 것"

미국 국무부가 최근 성소수자 미국인을 위해 여권에 '남성'과 '여성' 뿐 아니라 '제3의 성'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이러한 변화는 "성소수자(LBTQI+)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자유, 품위,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블링컨은 또 "우리는 신청자가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그것이 다른 시민권 또는 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성별과 일치하지 않아도, 더 이상 의료 확인서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무부가 여권이 나 해외 출생 신고서(CRBA) 성별 표시란에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nonbinary)'과 '교차성(intersex)' 그리고 '비순응적 성(gender non-conforming)'도 추가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더 나아가 블링컨은 "비슷한 변화를 겪어온 '같은 생각을 가진 정부들(like-minded governments)'과 상당한 협의를 거쳐, 제3의 성별을 추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외국 정부와도 이 같은 조치를 공조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또한 성소수자(LGBTQI+) 공동체와의 지속적인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이



미국 여권. ©Pixabay

는 우리의 접근 방식과 앞으로 나아갈 입장을 알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제구호단체인 '사마리아인의 지갑'과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 회장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미국을 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레함은 "이 정부는 상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보이며,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에 동의하기를 원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든,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와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글을 남겼다.

김유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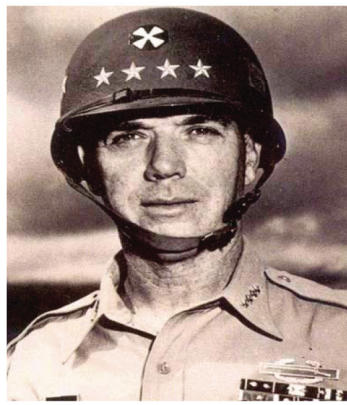
Never Ending Story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다큐영화 (제작참여)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아,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준 180 만명의 미국군용사들중, 34,000 전사자들과 13만 부상 군인들, 그리고 3,700명의 실종자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140구의 유해들...

아울러, 이들의 부모님들과 형제자매들 그리고 이 역사의 교훈을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께 이 영화를 바칩니다.

현재 4개국 (한,미,러,중) 현지 촬영중이며, 이번 6.25 71주년때 상영될 수 있도록 뜻깊은 제작후원을 바랍니다. (감독 윤학렬)



** 후원과 문의는 아래 미국 공동제작자인 기드온동작선교회로 해 주시면 되고, 모든 후원자와 단체의 명단은 영화자막에 게재합니다 **

예레미야 목사, 무신론 공교육 세뇌 경고... “기독교대안학교 찾아야”



데이비드 예레미야 목사 ©크리스천포스트 제공

미국 새도우 마운틴 커뮤니티 교회의 원로 목사이자 기독교 라디오 프로그램 '터닝포인트'의 설립자인 데이비드 예레미야(David Jeremiah) 목사가 진보적이며 무신론적인 이념으로부터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 공립학교에서 철수시킬 것을 교인들에게 촉구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예레미야 목사는 4일 독립기념일 특별 예배에서 “학교에 주입되고 있는 진보주의, 무신론 및 사회주의”에 대해 경고했다.

예레미야는 설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재고해야 할 때”라며 “나는 이제 주정부의 프로그램을 따르는 학교들이 기독교 젊은이들에게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아이들이 세뇌를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아이들이 대학에서 세뇌당할 것을 걱정하곤 했다. 그러다가 조심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에 세뇌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오늘날 공립학교들은 “1학년 때부터 세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레미야는 “아마도 여러분의 학교는 지금 교육 과정에 투입되는 이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는 몇 안 되는 학교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기독교 교육을 고려하는 것이 여러분의 책무”라며 “자녀들의 삶을 파괴하고 그들의 믿음을 앗아갈 사회주의 이념의 거짓을 자녀들에게 먹이지 않을 기독교 학교를 찾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거짓말로 살기를 거부하라”며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사람들이 거

짓말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은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기독교인들이 공직에 출마하여, 좌파 이념으로부터 지역 사회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밝히면서 “우리 중 누구도 10년, 15년 전에 공직에 출마하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아울러 그는 기독교인들에게 교회로 돌아갈 것을 당부하며, 미국의 교회 출석률과 교인 수가 사상 최저 수준임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교회에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듣는다. 그들은 잠을 못 자고, 거실 교회를 좋아한다”면서 “우리가 혼자 하려 든다면 우리에게 다가올 진보하는 운동에 대면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그는 국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낙담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도 낙담해서는 안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시대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셨다. 우리는 오래 전에 예언된 날들을 살아가고 있다”면서 “주님은 이 서사시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셨고, 역사의 정점에서 그분의 대리인(agents)이 되는 것은 특권”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는 무기력하지 않으며, 세상에 대해 절망적이지도 않다. 우리는 무언가를 말하고, 무언가를 하며,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신념에 따라 살 수 있다. 언제라도 그 분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미 기독교 기업, ‘하나님 아래 하나의 국가’ 전국 신문에 전면광고



미국 기독교기업 하비 라비(Hobby Lobby) ©Flickr Creative Commons

미국의 기독교 기업 중 한 곳이 독립기념일을 맞아 신앙적인 문구를 인용한 광고를 게재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4일 미국 대형 공예품 도매 회사인 ‘하비 라비(Hobby Lobby)’는 다수의 일간지에 미국 국기를 들고 달리는 아이가 등장하는 전면광고를 실었다.

이 광고에는 “하나님 아래 하나의 국가(One Nation Under God)”라는 문구와 함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라는 시편 33장 12절이 적혀 있다.

또 지면에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및 건국에 기여한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인용문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기독교 신앙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

이 광고는 독립기념일에 맞춰 미국 전역의 신문에 실렸으며, 하비 라비의 소셜 미디어 페이지에도 게시됐다.

그러자 일부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이 광고를 “위헌”과 “선동” 및 “전체주의(dominionism)”라는 비난의 글을 올렸고, 세속적인 법률 단체의 항의가 이어졌다. 전 트럼프 공화당 지지자에서 민주당원으로 전환한 미국 시나리오 작가 데이

비드 와이즈먼은 자신의 트위터에 “미 육군에 복무했으며, 헌법 수호를 맹세한 유대인계 미국인으로서, 미국에 대한 당신의 성명은 기독교인들에 의해 최악이자, 위험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하바 라비는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난했다.

위스콘신주에 기반을 둔 무신론자 단체 ‘종교로부터의자유재단(FRF)’은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우리는 하비 라비를 믿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교분리 원칙을 토대로 각 인용문들을 반박했다.

반면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지도자의 생각은 달랐다.故 빌리 그레함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하나님과 이 기업의 경영주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레함 목사는 이 회사가 “7월 4일에 아름다운 전면 신문 광고를 내보냈다는 이유로 공격받고 있다”며 “비록 이 광고가 불편함을 주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읽고, 하비 라비의 기업주, 그린 패밀리가 무엇을 옹호하는지에 대해 감사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그린 패밀리와 그들의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사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가치를 옹호하는 강력한 공적인 태도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보수적인 기독교 가치로 유명한 하비 라비는 지난 몇 년간 독립기념일에 성경 메시지가 포함된 광고를 게재해왔다.

이 회사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창업자인 데이비드 그린은 미국의 신문 광고들이 국경일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1996년부터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부활절, 독립기념일 등의 의미를 알리는 전면광고를 게재하기 시작했다.

김유진 기자

교회 찾아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오전 11:00
오전 11:00
오전 11:00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培育和 2세대를 영육하며, 이민가정을 지원하며, 선교영광을 증행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len 코너)
T. (213) 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St.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례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 화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O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이청년예배 오후 12:3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성지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커뮤니티를 살리는 예수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 금) 오전 5:30
12세예배(월요일예배) (소매별)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신, 초신의 흠뻑, 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금) 신도모임과 만민부 지역 연합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 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월, 화)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cs.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지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 화)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영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침례 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 6: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조준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금)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가)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00
중보기도일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리 내 길에 빛이오니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찬양찬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종교동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밤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경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회 오후 7:30 찬양찬년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찬양찬년 주일 오후 1:00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최 혁 담임목사

벨리제물 MP제물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교육부 후원예배
금요일성경회 오후 7:30 종교동부 오전 11:30 (수요주중예배: 오후 6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토) 오전 6:00 종교동부 오전 11시 (금요주중예배: 오후 7:30)
1954 Hiram St., Northridge, CA 91325 EM: 오후 1:30
T. (818)9363-686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민종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토렌스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유종교동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신태성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종동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종교동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이석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전 11:00

나성금란교회
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종교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 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동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며,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일성경대림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r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m.com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미얀마 기독교인들, 군부 쿠데타 이후 더 큰 위협에 직면



미얀마 기독교인들. ©오픈도어

미얀마 기독교인과 소수 민족들이 지난 2월 1일 시작된 군부 쿠데타 이후 더욱 큰 위협에 직면했다고 인권 전문가들이 경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에 본부를 둔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교연대(ICC)는 최근 미얀마 기독교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에 초점을 맞춘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들은 ICC의 새로운 보고서 '십자포화 협공: 타트마도우 통치 아래 놓인 미얀마 기독교 소수민족'(Caught in the Crossfire: Myanmar's Christian Minorities Under Tatmadaw Rule)에 관해 언급했다.

보고서는 "미얀마에서 공습 및 지상전이 전국 각지로 확산되는 등 폭력 사태가 심화되고 있으며, 수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많은 이들이 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불안정과 식량 부족과 거대한 인명 손실은 미얀마 국민들, 특히 취약한 소수 민족을 위협한다"고 했다.

버마로도 알려진 미얀마는 카친, 친, 로힝야, 카렌 공동체를 포함한 일부 기독교 소수민족들의 본거지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는 미국 기독교인, 인도와 중국계 기독교인, 카자흐 카레니 기독교인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불교가 국교로 인정받고 있으며, 기독교인은 5천 4백만 인구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소수 집단들이 종교의 자유 침해로 고통받고

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나딘 마엔자 의장은 패널 토론에서 "어떤 소수민족도 박해나 차별에서 안전하지 않다. 그러나 지난 2월 1일 쿠데타 이후 미얀마의 상황은 크게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작년 11월 선거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타트마도우 군부는 결과에 승복하기를 거부하고, 유권자들은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있다. 군은 1년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민간 지도자들을 가택 연금했다.

군부가 주도한 2월 1일 쿠데타 후 소수 종교 집단에 대한 광범위한 폭력, 시위 등으로 상황은 악화됐다. 최근 몇 달 동안 마을의 공격을 받은 수천 명의 난민들이 교회로 대피하면서, 교회 역시 군사 포격으로 인해 파손되거나 파괴됐다.

지난달 유엔은 카야주에서 교전이 증가하며 10만 명에 달하는 이들이 민간 지역에 대한 보안군의 무차별적 공격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유엔은 카야주 등 미얀마 동남부 지역에서 급속히 악화되는 안보와 인도적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ICC 보고서는 "교회에 대한 공격의 증가는 타트마도우 정권이 기독교를 적대하고 인간 생명을 경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밝히고 있다.

미얀마는 2021년 오픈도어가 발표한 기독교 박해국가순위에서 18위를 기록했다. 미얀마는 불교에 더 비중을 두는 종교 민족주의로 인해 박해 수위가 매우 높다.

이미경 기자

미 국제종교자유위 "옥사한 예수회 신부, 인도에 책임 물어야"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예수회 신부이자 인권 운동가인 스탠 스와미(Stan Swamy)의 사망에 대해 인도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나딘 마엔자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의장은 최근 성명을 통해 "성직자의 죽음을 초래한 인도 정부의 고의적인 방치 및 겨냥에 대해 가장 강한 어조로 이를 규탄한다"며 "미국은 인도 정부에 책임을 묻고 미국-인도 양국 관계에 종교적 자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로 84세인 스와미 신부는 지난 5월 타찰라 중앙 교도소에서 심장마비를 겪은 지 며칠 만에 사망했다.

당시 그는 기저질환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으며, 재판 전 구금 중에 코로나 19에 감염되었다. 이후 이 신부는 건강이 악화되어 뭄바이 서부의 한 개인병원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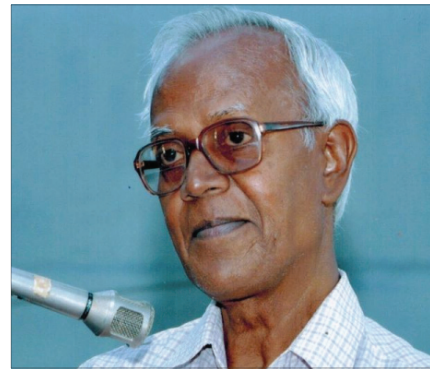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국제 사회의 우려와 의료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음에도, 인도 관리들과 법원은 스와미의 보석과 시의적절한 건강 관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스와미는 2018년 마하라슈트라 주에서 폭력 선동 혐의로 기소된 단체와 유대를 가졌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불법활동 방지법(UAPA)에 의해 기소됐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인도 예수회 회장인 제롬 드수자 신부는 성명을 통해 "스탄은 세상을 밝히고 불의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정부는 그의 목숨을 앗아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의 정신은 계속해서 장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수회가 인용한 스와미의 옥중 서신에는, 그가 감옥에서 물 한모금을 마시는 것조차 거절당하는 등 비인간적인 수모를 당했다고 적혀 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세계기독교연대(CSW)의 CEO인 스킷 바우어는 "적절한 증거도 없이 NIA(인도국립수사국)에 의해 체포되고,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거듭 기각된 보석 신청, 그가 수감 중에 받은 비인



스탠 스와미(Stan Swamy) ©Khetfield59

간적인 처우는 모두 인도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충격적인 인권 침해를 보여 준다"고 말했다.

세계기독교연대는 인도 인권 운동가인 세드릭 프라카시 예수회 신부의 말을 인용해 "스와미가 토착민들의 인권을 위해 앞장섰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인도 정부가 2019년 개정된 테러방지법을 통해, 한 개인을 테러범으로 지정할 경우, 증거 없이 최대 6개월간 구금할 수 있으며, 이후 최대 7년간 수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의 교회 단체들과 시민 사회 지도자들은 인도 정부가 '마오주의자' 또는 '극단적 마르크스주의자'라는 혐의로 예수회 신부들을 체포한 데 대해 항의했다. 인도 카톨릭 교회는 스와미 신부가 원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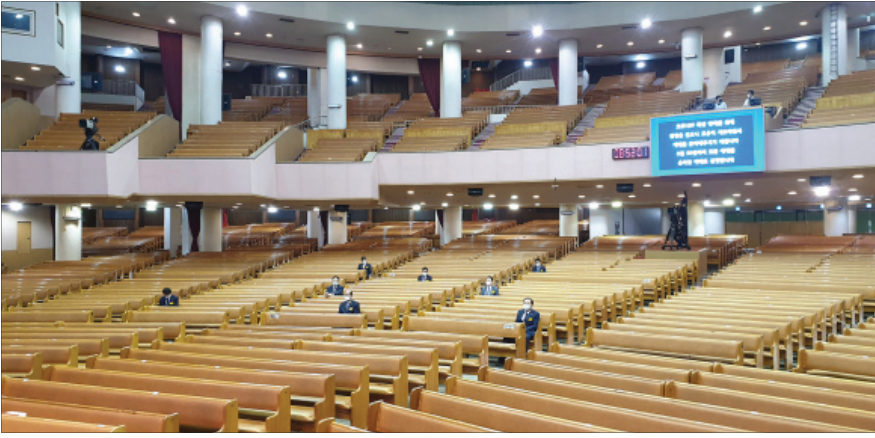
스와미는 체포 이틀 전,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에서 수 천명의 젊은 원주민과 지역민에 대한 정부의 무차별적인 체포에 맞섰기 때문에 자신도 체포될 것이라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인권 박해에 대한 우려에도, 점점 더 감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6월 인도 정부는 '특별 관심 국가'로 지정되자, 기독교인 및 이슬람교인에 대한 박해 실태의 조사차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던 USCIRF 대표단에 입국 비자를 거부했다.

김유진 기자

한국 수도권 교회들에 세 번째 '비대면' 예배 지침 내려져



여의도순복음교회가 과거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모습 ©여의도순복음교회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새 거리두기 체계의 최고 수준인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교회들은 이 기간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 지난해 8월과 1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단계 격상 하루 전인 11일, 대부분 교회들은 현 단계에서의 종교활동 방역수칙(수용인원 20% 이내)에 따라 예배를 드렸지만 일부는 선제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린 곳도 있다. 우리들교회(담임 김양재 목사)는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지역사회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7월 11일 주일예배는 비대면 온라인예배로만 드리겠다"며 "백신 접종자 역시 현장예배 입장이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앞으로 예배 뿐만 아니라 수련회나 캠프 등 교회의 여름사역도 일정이나 방법 등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일단 2주간 적용되지만 그 이후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륜교회 청년국장인 주성하 목사는 "청년교 수련회 날짜를 일단 뒤로 미루기로 했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른 교회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어린이 사역단체인 '히즈쇼'(His Show)

김진영 기자

는 "오프라인으로 계획하며 준비해 오던 교회학교 여름사역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갑작스러운 변화로 교회학교는 일정을 연기하거나 온라인 여름사역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는 10일 관련 목회서신을 통해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로 세 번째 비대면 예배 기간을 맞이하게 됐다. 이제는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아픔과 충격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에 익숙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기까지 하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두 주간으로 이 비대면 예배 기간이 끝날지 아니면 더 지속될지는 오직 하나님 아신다"며 "오직 우리가 아는 것은 이 기간이 결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공동체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특히 "앞으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기간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인내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기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한다"며 "더 깊은 믿음과 더 성숙한 사랑으로 사회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기간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목선협, KWMA와 인터콥의 상호 협력 당부



최바울 선교사 ©유튜브

인터콥의 KWMA 탈퇴 소식에 유감 표명

인터콥선교회(본부장 최바울 목사)가 최근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를 탈퇴한 것과 관련, 한국목회자선교협의회(이하 목선협)가 7일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목선협은 또 KWMA와 인터콥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길 당부했다.

목선협은 한국교회 부흥과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전국 약 2,000명의 목회자가 참가하고 있는 초교파 교회연합체다. 공동대표로는 김찬호 목사, 전태 목사, 조희완 목사, 김주연 목사가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미전도 종족 전방 개척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인터콥이 KWMA에 탈퇴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잘못을 떠나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며 "지난 30여년간 인터콥은 KWMA의 정회원으로 함께 활동하며 동역했고, KWMA의 지도를 받으며 한국교회와의 연합사역을 위해 노력해 왔던 선교단체다. 이런 단체를 버린다는 리더십으로 품지 못하고 떠나 보낸 것은 KWMA의 리더십과 역량을 봤을 때 아쉬움과 함께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목선협은 "또한 코로나를 근거로 교회를 옮아매는 시대적 상황 가운데 올 초 인터콥에 대한 언론의 왜곡보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선교단체를 KWMA에서 보호하기는커녕 '2년 정지 5년 지도'를 결정하는 것은 KWMA의 권위와 리더십을 의심하게 하는 결정일 뿐만 아니라 향후 역사적 평가가 결코 긍정적일 수 없다고 사

료된다"고 했다. 목선협은 "인터콥은 최전방 미전도 종족에 1,500여 명의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며, 이슬람권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적인 선교를 하고 있는 단체"라며 "지금처럼 한국교회 선교동력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콥은 오히려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은 평가할 만한 것으로, 한국교회가 오히려 기도로 후원하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터콥은 평신도 선교단체이고 또 일찍이 헌신한 청년이 많기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선교에 대한 저항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평신도 선교단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또한 미전도 종족의 대부분이 있는 이슬람권의 경우 '전문인 선교'가 가장 효율적인 선교접근임을 고려할 때 인터콥 같은 '평신도', '전문인 선교' 단체는 더욱 장려되고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터콥은 40여년 전 한국에서 시작한 선교단체로서 국내 70여 개의 지부와 해외의 250여 개의 지부 및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4500여 명의 스태프가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상 세계 최대의 미전도종족 선교 단체"라며 "제3차 입장에서 목선협은 KWMA와 인터콥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여, 2006년 한국교회와 KWMA가 결의했던 '2030년까지 10만 선교사 파송'에 대한 Target 2030의 비전을 성취해 나가길 간절히 바라는 바다. KWMA가 선교 연합체로서 한국교회 선교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이대웅 기자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토레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질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김우준 담임목사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김철민 장로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민승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대(한글)예배 오후 2:00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에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음 생명의 열매를 심어 생명의 나무를 심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cfc.com

이 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령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김성원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왕상윤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최순길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안창훈 담임목사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9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늘푸른선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주일 1부 예배 : 오전 9:45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유년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cocal.com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30(화-금)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김일권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 College 주일 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안성복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중보기도회 오전 9:00(목)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r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림학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이 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요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샘물교회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749-7770 www.saemool.church

정기정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박신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2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 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92886
T. (714)646-9259

신원규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함께 걷는교회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1학년도 여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학생 수시 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2021 여름학기 강의시간표

Day	Time	Class	Professor
Mon	7:30 PM - 9:30 PM	중세교회사	Daniel Min
Wed	8:30 PM - 10:30 PM	시편강해2	Timothy Song
Thu	7:30 PM - 9:30 PM	고린도전후서	James Lee
Fri	8:30 PM - 10:30 PM	기독교상담학2	Elijah Kim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교육학박사,신학박사,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기독교 영성 절제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기독교에서 “영성”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영성”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에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성”이라는 단어를 “영적 성숙”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성”을 “영적 발달”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영적 성숙”으로 보면 “영성”은 완료가 되지만 “영적 발달”으로 보게 되면 진행형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성”에 필요한 대표적인 모습을 꼽으라 한다면 “절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성”에 있어 절제함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세상의 유혹 앞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 영성 절제”라는 주제를 함께 나눠 보기 원합니다.

먼저 “절제”란 단어는 헬라어로 “엔크라테이아” (Greek: νηπιουνepsis) 이며 영어로는 “Self-Control” 혹은 “Temperance”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방탕하거나 뭉개에 취하지 않다.” 혹은 “절제하여 영혼을 맑게 유지함”라고 해석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여덟 가지 바쁜 생각들 즉 “간음”, “탐욕”, “비탄”, “분노”, “나태”, “허용”, “오만”, “대식” 등이 우리 속에서 활개 치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여 몸과 마음의 평온과 정돈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절제를 위해 “영성 훈련”을 가지곤 하는데 이에 대하여 복음주의 신학자이면서 목사인 “달라스 윌라드 (Dallas Willard)”는 “현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의지가 아닌 감정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영성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는 “영성 훈련”을 크게 “절제 훈련”과 “참여 훈련”으로 구별하여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제 훈련”에는 “독거”, “침묵”, “금식”, “검약”, “순결”, “금언”, “희생”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참여 훈련”에는 “성경훈련”, “예배”, “찬양”, “봉사”, “기도”, “친교”, “복종”등을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영성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의 시대가 풍요의 시대이기 때문에 절제하기에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끼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 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라고 절제의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 목표는 “자신은 모든 일에 절제하며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썩을 승리의 관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언 25: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음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절제는 영적 성숙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절제가 없는 영적 성숙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절제라는 말의 또 다른 이름은 내려놓음입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을 내려놓고, 나의 은밀하고 어두운 구석도 모두 포기하고, 내가 나를 통제하려는 마음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십자가의 은혜에 내어맡기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자유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절제를 우리를 속박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자신까지도 모두 버릴 때, 비로소 찾게 되는 것이 가장 귀중한 자유임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본기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에서 완전히 밀린 것입니다. 역시 기본 체력이 있어야 뭐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 기회였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끼리도 잘 쓰는 말이 “체력도 영력이다”입니다. 말씀과 기도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 관리도 지극히 영적인 일입니다.

어느 교회는 교역자를 뽑을 때, 체력 테스트를 하고 목회자를 선임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처음엔 웃어넘겼지만, 저희 교회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몸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성도들을 어떻게 돌보겠느냐는 말은 점점 더 설득력을 얻습니다.

기본 체력에 도전을 받은 저는 우리 목회진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트레일을 걷자고 제안했고, 지난주부터 일주일에 두 번씩 새벽에 나와 한 시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 년 전보다 베델 목회진들은 확실히 건강해졌습니다.

“체력도 영력이다” 맞습니다! 말씀 준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체력이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건강해야 성도님들을 위해서 뛰어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도 조절하고, 몸의 컨디션을 잘 유지하면서 매일매일 최상의 상태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기를 힘씁니다.

우리의 최선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 정신 건강과 생명까지도 철저한 헌신으로 섬기기를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님들! 기본기에 충실하십시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여는 영적 기본기를 바탕으로, 100세 시대에 꾸준한 기본 체력을 유지하여 베델의 예배와 사역에 ‘최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탄탄한 영적 기본기로, 멋진 폼으로 골프 티샷 250 야드를 날리듯,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그처럼 하늘을 가르고 녹색 페어웨이로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박광철 목사의 영성 개발

유명한 리더 VS 존경 받는 리더



슬트하우스선교회 대표
박광철 목사

2. 리더십의 특징

1) 일반적인 리더십

우선 세상적인 측면에서 보는 리더십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이와 함께 영적 리더십의 특징과 비교하고자 한다. 세상 사람들은 직장과 단체에서 대개 어떤 사람을 좋은 리더로 인정하는가? 단체의 대표는 모두가 추종해야 하는 좋은 리더들인가? 사회에 잘 알려진 유명 인사들은 모두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는가? 대부분의 리더십 세미나와 관련 서적들은 대기업의 대표나 정치 지도자, 군대 지휘관, 스포츠 명사들을 예로 들면서 리더십의 의미와 형태를 가르친다. 그렇지만 그런 접근법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다.

또한 대부분의 초대형 교회의 목사들을 “훌륭한 리더”인 것처럼 세우는데 이것은 영적인 리더십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교인의 숫자가 많고 예배당 건물이 크고 웅장한 곳에서 목회하는 이들은 모두 우리가 따라야 하는 영적인 리더일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일 것이다. “목회자 리더

십”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대부분의 세미나나 훈련 교육 현장에 초청되는 강사들은 대형 교회 목사들이다. 그들은 자기 사역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역설하고 그가 택한 방법이 효과적인 목회 성공의 비결이라고 외친다.

작은 도시의 규모가 작은 교회를 감당하는 목회자를 그런 세미나의 강사로 초청하는 예는 거의 없다. 이런 것은 상업주의적인 사고방식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초대형 교회 목사들 중에 개인적인 비리나 공공 횡령 또는 불륜 문제로 크게 수치를 당한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을 묵과할 수 없다.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찰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잘못된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리더십을 말할 때에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자.

(1) 비전과 꿈

대다수의 리더들은 비전에 대해서 말한다. 그리고 또한 비전이 크고 멀리 볼수록 더 좋은 리더십의 요건이 된다. 예를 들어서 기업을 크게 확장하거나 단체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런 꿈이 없으면 현실에 만족하거나 퇴보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상황을 잘 이해하고 미래 상황을 바르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꿈은 누가 꾸는가? 누구의 비전인가? 그것은 자기가 속한 단체나 교회를 위한 대표 자기 자신의 꿈이고 비전이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무관한 꿈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을 “이민자의 꿈”이라는 식으로 자주 말한다. 무엇을 말하는가? 이민 사회와 주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사회적으로 이름을 날리거나 단체의 장이 되거나 직위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런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리더가 추구할 것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2) 창조성과 생산성

리더는 남의 것을 모방하기보다 스스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영입 실적이 좋아야 한다. 즉 숫자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실적을 올려야 한다. 결과가 그의 실력을 말해준다. 방법이 어떤 것이든지 경제성을 올리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윤리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유능해서 그가 재임할 당시에 미국 경제가 호황이었다.

그러나 그는 성적 스캔들에 휘말려서 사회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많은 가정이 혼란에 빠지고 성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었다. 그렇지만 당시 “타임지”의 기사 중에 일종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다수가 “그가 무슨 짓을 했든지 나와는 상관없고 다만 나의 손에는 돈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청년은 “우리는 정치와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을 뽑은 것이지 윤리와 도덕을 중시하는 성직자를 뽑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리더십은 결과물을 내는 사람이다.

(3) 추진력과 결단력

강력한 리더는 무슨 일에도 단정히 주저하지 않고 밀로 나가는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이 결단을 주저할 때에 용감하게 결단을 내림으로 일을 시행한다. 독재자들은 대개 일방적으로 일을 밀고 나가는데 일을 성취하기는 해도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는다. 한국의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인 출신으로서 강력한 추진력으로 나라의 경제발전을 크게 이뤘지만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이들이 많았다. 또한 현대 그룹의 정주영 회장은 하고자 하는 것에 거침없이 도전함으로써 한국 경제에 많은 유익을 끼쳤다. 이것도 탁월한 리더십의 모습이다.

(4) 열정과 열심

계은 사람은 사회 어느 분야에서든 결코 리더가 될 수 없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거나 자주 망설이면서 일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람은 리더로서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성공적인 리더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오래 그리고 열심히 일한다. 자기가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열정이 식지 않는다. 기업체의 많은 리더들은 종종 식사를 거르고 휴식도 없이 고단하게 일한다. 어떤 단체의 대표는 공휴일에도 혼자 공장이나 사무실에 나와서 일하는 것을 본다. 그런 면에서 강한 리더의 특징 중의 하나는 무슨 일을 해도 열심히 한다는 것이다.

(5) 인간관계와 커넥션

사회생활의 성공 여부의 대부분이 인간관계에 달려 있다는 연구 조사가 많이 있다. 타인과 자주 다투고 갈등하며 불화하는 사람은 리더로서 세워지기가 어렵고 오히려 왕따를 당하기 쉽다. 또한 힘과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종종 정치인과의 긴밀한 관계를 갖는

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출신 지역과 졸업한 학교 또는 다양한 이유로 연결된 사람들이 출세의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그런 끈끈한 인맥이 끊어지면 리더십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6) 지위와 직위

단체에서 직위가 높을수록 힘과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과장보다 부장, 부장보다 사장이 더 힘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기관과 단체에서나 더 높은 직위를 추구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힘이 있고 영향력이 많지만 그의 임기가 끝난 후에는 어떤가? 거의 예외 없이 그의 영향력이 사라진다. 어느 대형 교회 목사는 성공적인 목회로 일반인에게도 많이 알려졌고 또 교계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런데 그의 장인되는 분이 그에게 말하기를 “자네는 상당히 유명하군. 그런데 자네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는가?”라고 물었다고 한다. 유명하지만 존경받지 못한다면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미국의 전 대통령인 지미 카터는 대통령 임기 중에는 별로 인기를 받지 못했지만 임기를 마친 후에 사회에서 봉사하면서 사람들에게 더 존경을 받고 더 좋은 영향을 끼친다.

(7) 인간에 대한 책임

세상적인 리더의 경우에는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그들은 업적과 여론 등에 의하여 평가되고 상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갈 길이 정해지기도 한다. 결국 그들의 최고 상관인 사람일 뿐이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니어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영타슈
 주일제전
 2023년
 공미라고
 마그네틱 영봉투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40년만 시공하면 원가보다 저렴합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C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Z-UP전동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양자 깔창
양자파동 에너지 쿠션 죽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할,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들게 한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1) 죽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2) 은 : 항균, 향취 효과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 영구적으로 나옵니다.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1-10



서울성교회 목사 장재효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시고 구원의 빛이시며 영원한 빛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고 핍박과 환란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총의 대상으로 붙들어 써 주시게 되며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그리 녀치지 못한 형편으로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정에 딸 둘과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딸 둘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상 주는 일이 있을 때마다 상을 받아오고 교회에서 모범학생으로 주는 장학금까지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둘 중에 큰 아들이 말썽입니다. 중학교도 낙제를 면할 정도로 공부를 싫어해서 가까스로 졸업을 했고 공부가 싫어서 고등학교도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장남이라고 집에서는 공부시켜 가문을 일으켜보려 기대를 가지고 뒷바라지를 했지만 공부가 죽기보다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술과 노름에 빠져 부모 속을 썩였습니다. 그래도 작은 아들은 누나들을 따라서 열심히 교회에 다녔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 더럽고 추한 곳엔 가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습니

다. 큰 아들은 그렇게 자라서 술과 도박, 음란 방탕함으로 결국 형무소까지 가게 됩니다. 그는 양심이 화인 맞은 심령으로 이성을 잃고 인생의 꿈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악령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도박 빛에 쫓겨 다니다가 모진 목숨이 죽는 것은 두려워서 도적질을 하게 되어 형무소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무료하고 지겹게 감옥 살이를 하던 중 그곳에서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았고 억압된 생활 속에서 고민하던 중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심장이 폭발하는 듯한 회개가 터지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방랑에 방망이던 자기 인생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지난날들이 후회스럽게 스쳐 지나가다가 이런 자신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예배시간에 빠짐없이 참여하기 시작했고 신앙으로 자신의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범수가 되고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광복절 특사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제일 먼저 그의 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에 가지자고 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토록 속썩이던 자신이 교회를 통해 새사람이 되어왔다는 생각에 바로 교회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모두 의아스럽게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목사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사모님이 장로님 팔과 그 사람을 중매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성경학교를 다니면서 3년 코스를 1년 3개월만에 마스터하고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쳐서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건축과를 졸업해서 결혼을 한 후 건축회사를 운영하던 장인의 일을 돕게 됩니다. 그당시는 건축분야에서 굉장한 호황을 누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의

령에 세운 회사의 사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끼리도 서로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타락했다가 감옥에서 전도 받고 잃어버린 자신을 찾기 위해 회개하고 기도하며 성경에 심취하면서 성령께 이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신을 찾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처럼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말과 행동, 그리고 생활습관과 모든 것이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빛의 자녀같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열심히 다니는데 사고방식과 말투, 행동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선 다시금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생축은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짐승처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며 죽임당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괴로움을 덜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 벌 받아 죽임당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그 아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보좌우편에 앉히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에게 주시고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닮아가는 변화가 없다면 빛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더러운 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취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한 몫이 가장 유익한 것이기에 탐욕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이 내 몫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만족함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죄 값을 대신 벌받아 피로 그 사람의 죄 값을 치루고 구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무리를 성도(聖徒)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4절의 어리석은 말은 금방 탄로날 거짓말과 같은 것입니다. 희롱은 상대방을 비하시켜 놀리는 말입니다. 믿음의 자녀는 이런 말들을 삼가고 늘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5절에서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수많은 이단종파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단은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손쉽게 구원을 보장합니다. 이같은 헛된 말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못된 짓하고 말씀을 거역하며 불의와 죄악을 일삼는다면 하나님의 진노(震怒)가 임할 것입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생각해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천국에 갈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믿다가도 타락하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는 예수님 안에 거한 사람들입니다. 즉, 빛에 거한 사람들입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할 것이며 온전히 변화된 행동과 성숙한 인격으로 나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보답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면서까지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내 생애에 모든 것을 모두 바쳐서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좋은 것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컬러 전문점

헤어컬러 \$40 up \$20 up *단, 컬러만 하시면 \$40*

매직 스테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들입니다.

PROFESSIONAL WELLA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컬러 확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미나리’ 감독 “영화 속 기독교인, 가족 사랑 가르쳐”

정이사 감독, 美 매체와 인터뷰… “이민자들만 아닌 모두의 이야기”



©영화 <미나리> 포스터 ©Press.a24films.com/films/minari

미국 골든 글로브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영화 ‘미나리’의 정이사 감독이 영화 속 기독교인 캐릭터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친, 그의 삶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영화 ‘미나리’는 1980년대 미국으로 이민한 한인 가정의 아칸소 시골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했던 이야기로 정 감독의 어린 시절을 바탕으로 했다. 정 감독은 이 이야기가 그의 실제 삶에서 유래했으며 ‘기억 속 목록’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영화의 줄거리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상당수는 제 인생에서 일어난 일에서 비롯됐다”라며 “집에서 볼 수 있는 사소한 세부 사항들은 실제 삶에서 유래했다”라고 했다.

이 영화에는 배우 스티븐 연, 한예리, 앨런 김, 노엘 케이트 조, 윤여정 등이 출연했다.

시놉시스에 따르면 영화 ‘미나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아칸소 농장으로 이주한 한인 가족을 추적한다. 이들 가족은 입을 험악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이 많은 할머니가 도착하면서 완전히 변화된다.

정 감독은 영화에서 보듯 자신의 부모님이 병아리 부화장에서 일했으며 누나,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영화 속 많은 배경들은 이야기의 흐름에 맞게 변경됐다”면서 “영화 속 가족 역동성과 진정성은 관객들에게 가장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매우 현실적이고 인간적으로 느끼는 가족의

초상화를 보여주고 싶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가족을 나타내고자 한 것만은 아니었다”면서 “이들은 투쟁하면서 갈라지고 싸우고 여러 번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그들은 함께 지낼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며, 그 이면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 진정한 목표는 인간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기를 희망하는 것이었다”라고 소개했다.

영화 속에서 가족은 농장에서 이들을 돕고 기도하는 백인 기독교인을 만난다. 정 감독은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한 캐릭터가 가족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우리 농장에서 일했던 오순절 교회 교인이었다. 내가 그와 함께 지내며 얻은 감각은 성경에서 볼 수 있다. 현자를 여러 번 부끄럽게 한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는 그에게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했다.

그는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다”며 “솔직히 말해서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친구가 되었다. 그는 우리 집에 초대했던 첫 번째 손님이었다. 그는 우리를 정말 환영했다”라고 했다.

정 감독은 “나는 그를 반(半)적인 방식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왜냐하면 남부 백인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 많고 캐리커처 같이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감독은 영화의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자신과 여동생을 위해 가족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감사하다고 했다. 그는 “할아버지는 군인이었고 전쟁에서 돌아가셨다. 그 세대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할머니는 책을 읽을 수 없었고 초등학교를 마치지 못했다”라고 했다.

정 감독은 “그들이 저와 누나를 데리고 미국으로 온 후, 지금 이렇게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이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할머니처럼 말이다. 할머니는 실제로 영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에 대해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영화에 대해 “우리를 만든 모든 사람들과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을 위한 작업”이라며 “이것은 이 나라의 비밀 이야기다. 그것은 희생의 의미이다. 아시아계 이민자나 일반적인 이민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모두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팬데믹 가운데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아오는 것을 보고 있다. 어떤 인종이나 배경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당장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존경해야 한다. 그것이 저에게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반자전적 영화인 ‘미나리’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원한다라며 “제 영화를 통해 메시지를 가르치고 싶지는 않다. 이 가족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영화 <미나리> ©Press.a24films.com/films/minari



<미나리> 중 한인 이민 가족의 모습. ©Press.a24films.com/films/mina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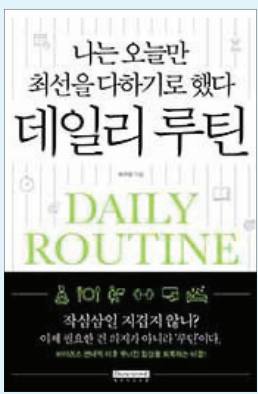
영화 <미나리> ©Press.a24films.com/films/minari



영화 ‘미나리’에서 앨런 김이 연기한 어린 데이비드. ©Press.a24films.com/films/minari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하나님 주신 인생 멋지게 만들어가길**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 꿈꾼다? 정신병 초기 증세”



데일리 루틴
허두영
데이비드스톤 | 320쪽

오늘을 최고의 하루로 조각하는 법, 데일리 루틴! 당신은 내일을 살지만, 성공한 사람은 오늘을 산다.

저자는 붕괴한 루틴을 재건하기 위한 자신만의 매뉴얼을 만들 듯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느낀 점을 이 책에 솔직하고 담백하게 담았다.

그동안 불필요한 약속으로 바쁘고 일에 파묻혀 살던 삶에서 벗어나, 지금은 많은 시간을 가족과 자신을 위해 투자하며 매일 후회 없는 오늘을 살고 있다.

새로운 미래 기대한다면, 오늘을 변화시키라
거대한 것보다, 작은 것부터 오늘 당장 시작
성공 못한 사람, 좋은 삶 방해하는 루틴 많아
역사적 위인들 공통점, 매우 단순·반복적 일과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닌, 만들어가는 것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꿈꾸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라고 말했다.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면 오늘을 변화시켜야 한다.

변화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자꾸 미루는 경우가 있다. 닐 피오레 박사는 사람들이 일을 미루는 것은 마음 속 깊이 감춰진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한다. 두려움에서 잠깐이나마 벗어나려는 마음 때문에 바로 시작하지 못한다.

변화의 시작은 일단 시도하는 것이다.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한다. 거대한 것이 아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 하루를 변화시키면 미래가 바뀔 수 있다.

《데일리 루틴》은 변화를 외면하고 미루고 싶은 사람에게 필요한 책이다. 저자는 허두영으로 인제대 발 전문 컨설팅 기관에서 컨설턴트와 교수로 일했고, 현재 데이비드스톤 대표이자 ‘요즘것들’ 연구소 소장이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평상시 루틴이다. 성공한 사람은 평범한 일상을 정성스럽게 쌓아가는 사람이다. 공든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은 독서, 운동, 긍정적 사고 등 좋은 루틴이 많다. 반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음주, 흡연, 도박, 무절제,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스마트기기 사용 등 좋은 삶을 방해하는 루틴이 많다.

저자는 사람은 누구나 공평한 하루를 선물 받는다고 말한다. 그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공이 결정된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대리석 덩어리 같은 하루를 예술 같은 하루로 빚는 것이다. 이탈리아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이나 피에타상을 깎아내듯 말한다. 미켈란젤로는 말한다. ‘나는 그 대리암에서 천사를 보았고, 그를 해방시킬 때까지 돌을 깎았다.’”

루틴이 무엇인가? 영어 단어인 루틴(Routine)은 규칙적으로 하는 일의 통상적인 순서와 방법, 판에 박힌 일상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다. 김연아 선수는 경기 시작 전에 몸을 풀 때면, 항상 경기장을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돈 후 뒤로 서서 S자를 그리며 활주하는 준비 루틴을 지켰다.

류현진 선수는 선발 등판에 맞춰 4일간의 루틴을 실천한다. 선발 등판 다음 날에는 어깨 운동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이튿날에는 튜브로 어깨를 폼다. 사흘째가 되면 상체 운동과 함께 어깨 운동을 다시 한다. 나흘째에는 경기할 상대 팀 타자를 분석한다. 루틴은 자신만의 규칙적인 일상이다.

루틴은 습관과는 다르다. 습관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다.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행동하게 만든다. 루틴은 의도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좋은 것들로 채워간다.

루틴을 잘 실천하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7가지를 얻게 된다.

첫째, 불필요한 의사결정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우리는 하루에 7만 가지 일을 생각한다.

둘째, 중요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다.

셋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넷째, 평범한 두뇌로도 성공할 수 있다.



나만의 루틴을 가지라. ©픽사베이

다섯째, 힘들이지 않고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여섯째, 자유와 성취를 얻을 수 있다. 루틴은 충동적인 자아를 제어하고 이상적인 자아가 삶을 다스리도록 한다.

일곱째, 빨리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영국의 온라인 미디어 ‘데일리 메일’은 역사적 위인들의 일과를 조사했다. 역사적 위인의 공통점은 매우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과였다. 그들은 자신만의 루틴으로 하루를 살았다.

전 영국 총리 마가릿 대처는 “습관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고 말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루틴이 미래를 바꾸는 것이다.

저자는 《데일리 루틴》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루틴 만드는 방법을 제공한다. 중요한 일을 오전에 끝내는 루틴, 점심시간을 두 배로 활용하는 루틴, 월요일 없는 주말 루틴, 지루함 없는 운동 루틴 등 다양한 루틴 활용법을 자신의 경험과 함께 설명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시간은 강물처럼 한 번 흐르면 두 번 다시 그곳을 지나지 않는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하루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닌,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금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바뀌어야 한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 ‘내일’ 없어... ‘오늘’ 이 시작
삶의 루틴 바뀐 제자들, 세상 바꿀 능력자로 변화
우리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닌, 만들어가는 것

예수님은 고기 잡는 어부에게 찾아가 “나를 따르라”고 말했다. 그 시 작은 ‘지금 당장’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내일’이 없다. ‘오늘’이 시작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의 루틴을 바꿔주셨다. 삶의 루틴이 바뀐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만이 아닌 세상을 바꿀 능력자로 변하게 된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의 물이 바뀌었다. 그렇다며 우리 인생도 바뀌어야 한다. 나쁜 습관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에서, 의미 있는 루틴으로 꿈에 한 발자국 다가서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위기는 변화를 위한 좋은 통과 의례다. 윈스턴 처칠은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고 말했다. 삶이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루틴으로 변화를 경험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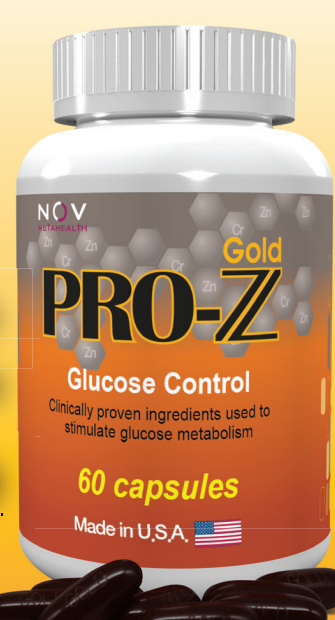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닌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가길 축복한다.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눔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NEW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글루코산 아연 크롬

홍화씨유

달맞이꽃 종자추출물

M 혈당조절! M 면역기능! M 세포분열!

-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 산화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글루코산아연(zinc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 섭취 후 혈액으로 혈당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당 배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병 인연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환자 당뇨 관리에 주를 두는 것은 인연 전 예방이 아닌 예방을 위한 정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위세포의 당 대사(와 해당 배타세포의 인슐린 반응)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이 주목하여, 아연에 OHP를 첨가한 신형 배타세포(PP-2) 프로지(PP-2)를 개발했습니다. 장부 예방 방법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병자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 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하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해당 배타세포 파괴)에 인연 인슐린 분비기능(저항)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을 강력히 중요한 필수 미네랄인 아연,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아연이 저하되면,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입니다.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해당 배타세포에서 인슐린 저항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형 배타세포(PP-2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과다한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사 활용을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형 배타세포 프로지 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몰리브덴(OHP)을 아연에 결합시킨 것으로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러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뇨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선택하세요.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한 분

요구적인 혈당 관리를 원하는 분

지속적인 혈당 관리를 원하는 분

식후 혈당이 높으신 분

건강이 염려 되시는 분

생활습관이 불규칙 하신 분

섭취방법
섭취시 1일 2회, 1회 1캡슐을 아침식사 30분 전과 잠자기 1시간 전에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해 주세요.

뉴 프로지골드 출시 기념 SALE

1병 구입시

\$79
+Tax

3병 구입시

\$225
+Tax

6병 구입시

\$432
+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공식 홈페이지 www.gideonbrothers.org

(제2차) 8.15 광복 76주년 기념 글로벌복음통일전문 선교컨퍼런스 [KONA 2021]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Conference [KONA2021]

"북한도 수년내 부흥케 하소서, It Will Surely Come!" (Hab2:3)

북한선교의 다양한 전문가들(역사, 기도, 정치, 경제, 인권, 구제, 지하, 문화, 영화, 교육 등)의 지혜와 전세계의 부름받은 청년들과 연합으로 복음통일의 길로!



(축사)
로렌 커닝햄 총장
YWAM



(격려사)
주선애 교수
장신대명예

- 일 시 : 2021년 8월 9일(월) ~ 8월 14일(토)
- 장 소 : 하와이 KONA(선착순 마감)
- 문 의 : T(425)775-7477, 기독교일보 T(213)739-0403
- 대 상 : 한어/영어권 누구나(영어동시통역)
- 참가방법 : (현장대면 또는 ZOOM으로) 맨 위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대회장)
임현수 목사
TMTc



(연합)
정성진 목사
거룩한빛광성교회원로



(디아스포라)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복음통일)
박한수 목사
제자광성교회



(회개_신사참배)
오창희 목사
흰돌교회



(통일경제)
신창근 교수
'통일은대박이다'



(중보기도연합)
이용희 교수
에스더기도운동



(북한농업)
김학송 선교사
전)평양과기대



(역사교육)
황준석 목사
Friendship Council of U.S



(탈북구출/북한인권)
천기원 목사
두리하나



(통일법)
송인호 교수
한동대학교



(통일정치리더십)
김선진 교수
전)통일부흥보팀장



(북한지교회역사)
강석진 목사
'북한교회사'



(북한인권영화)
윤학렬 감독
'철가방우씨'



(영어권통일교육)
채지미 목사
NT2 Mission



(간증)
김연영 자매
2015년 탈북



(진행)
황현주 아나운서
사회복지전문연구원



(복음통일네트워크)
박상원 목사
기드온동족선교(GBMW)



주최: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주관: NT2 Mission 협찬:미주기독교일보 생중계: